

# 달빛동맹 ‘병상 연대’...대구 확진자 7명 광주 왔다

빛고을전남대병원 2주 입원  
확진자 추가 수용 규모 결정  
광주시민들 빠른 쾌유 기원  
전남 중증환자 1명 이송 치료

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 차단했다.

병원에 도착한 확진자들은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뒤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병실로 이동하는 등 추가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대구 확진자들의 병실로 사용하는 병원 5~6층은 8개의 이동형 음압병실, 49개 격리 병실로 구성했는데, 음압병실은 복도, 전실, 병실, 병실 안 화장실 순으로 기압이 낮은 구조다.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흐르게 해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확진자가 머무는 곳과 병원 복도 사이도 별도 공간인 전실로 구분해 안전성을 높였다.

병원측은 경증환자인 점을 고려해 6~12시간 주기로 상태를 확인하고, '대중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중요법은 발열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를, 가래가 나오면 거담제를 투약하는 등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에는 감염병 전문의 등 의사 12명, 간호사 51명이 배치돼 대구에서 온 확진자들과 일부 광주지역 확진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 치료 기간은 평

균 2주일 안팎이며, 증상이 사라지면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조치 한다.

광주시는 대구시와의 조율을 통해 확진자의 추가 수용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광주시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대구모 환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자발적으로 요청해 대구지역 확진 환자들을 모셔왔다"면서 "모두 완쾌해 대구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중앙방역당국의 전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1명이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58세 남성으로 중증환자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당국의 전원 결정에 따라 지난 3일 밤 9시에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200만 전남도민의 온정과 성원으로 조속히 완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갑작스런 확진자 다수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환자 수용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등 병실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호 기자 khk@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오후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조기 극복을 위한 환자 치료지원 및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남도, 대구·경북 환자 수용하고 사랑의 도시락 보낸다

22개 시군·31개 기관 참여

전방위 '상생 지원' 힘 보태

전남도, 도의회, 22개 시·군,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갈수록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가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발표를 갖고 "대구·경북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경증환자를 수용하고, 사랑의 도시락 지원을 통해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지사 등은 이날 사랑의 도시락 300개, 소포장 김치 5500개, 위생용품 3900개, 손 소독제 400개, 마스크 1만개가 대구·경북지역에 전달됐다.

지난달 20일 마스크와 면역력 강화식품 등 68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지원에는 전남도는 물론 도의회, 도교육청, 목포시·순천시·강진군 등 22개 시·군, 그리고 의료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대구·경북 지역의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 수용해 치료하고, 감염병과의 사무를 맡기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환자들에게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김치 등 건강식품과 위생용품도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과 전남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경주·포항지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함께했다"며 "전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목포시 등 22개 시군과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도시락은 도내 여성단체·자원봉사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었으며,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 등을 통해 현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전남도 신천지 연락두절 신도 340명 소재 추적

1차 전수조사 마무리 단계

유증상자 '양성' 아직 없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연락두절 신도를 추적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신천지 신도 2만7495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이 중 통화가 안된 신도 296명과 소재불명 신도 44명 등 총 340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시는 또 신천지 신도 중 보건소에서 분류한 유증상자 239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23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 시설 9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112곳에 대해 시설폐쇄명령과 함께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전남도 지난 3일 기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99.8%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신천지 교인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22개 시·군, 경찰 등 관계당국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총 1만6096명의 신도 및 교육

생 가운데 1만6058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미확인 신도 등은 38명(0.2%)으로 군입대 19명, 전화거부 4명, 외국 체류 3명, 수감 3명, 연락처 오류 등 9명이다.

전수조사에서 유증상자는 194명으로 파악됐다. 검사를 거쳐 180명에게는 음성판정이 내려졌고 1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3명은 검사 대기 중이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전남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 제출을 명령하고, 신도들에게는 보건소 신고 및 검사 명령을 발송했다. /김영호 기자 khk@kwangju.co.kr

## 암울한 시기 마음 달래 준 7번 교향곡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3) 베토벤

최근 주말과 휴일, 본의 아니게 '방콕'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외출도 외식도 삼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한다. 읽으려고 사두었던 책,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았던 책,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쌓아두고 단지 독자가 되어 온 세상이 무탈하기 바라며 책장을 넘긴다.

책과 함께 듣는 음악은 덤. 올해가 베토벤(1770~1827) 탄생 250주년이자 인지 즐겨 듣는 FM라디오에서 매시간 베토벤의 음악이 자주 등장한다. 코로나19가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올해는 1년 내내 베토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콘서

트가 세계 도처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이어졌을 것이다.

한동안 시간만 나면 심취해 들었던 베토벤 7번 교향곡을 모처럼 통째로 감상하면서 암울한 시기에 새삼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확실히 예술의 미덕은 고통의 시간을 보다 잘 견디게 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악성(樂聲) 베토벤은 살아생전에 여러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린 대상으로도 유명하다. 요제프 칼 슈타이어, 페르디난도 게오르크 발트필러, 칼 클링 등의 화가들은 베토벤의 초상화를 통해 열정 가득한 예술가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켰다.

독일 출신의 카를 베른하르트 솔리셔(1832~1914)의 작품 '베토벤 작곡'은 단순한 베토벤의 초상화를 넘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고뇌에 찬 창작의 순간을 포착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형틀어진 머리와 강렬한 눈빛



솔리셔 작 '베토벤 작곡'

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강인한 '한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

베토벤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 혁명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술가답게 전통을 파괴한 새롭고 자유로우면서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는 음악을 시도하는 등 그 자신 자체가 혁명이기도 해서 이 그림은 따로 '시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